

The Role and Task of Confucian Education in the Metaverse during the Age of De-Religionization: Focusing on Zhuzi

Changho Shin¹, Jiyeon Han^{2*}

^{1,2}Kore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Confucianism activities in the metaverse in an era of non-religion, given the high proportion of non-religious individuals in the MZ generation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metaverse. It also aims to examine whether Confucianism activities in the metaverse play a religious role in adhering to metaverse ethical principles at a time when metaverse ethical issues are increasing.

[Contents] This study proposes the virtue of Confucianism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 of not adhering to metaverse ethical principles due to the lack of legal enforcement. Zhuzi's self-discipline, which voluntarily adheres to rules by possessing virtue, becomes the foundation of individual education that cultivates a gentleman avatar who realizes why they should adhere to ethical principles after seeing actions that violate them. Governing the World becomes the foundation of community education that makes one imitate a gentleman avatar who adheres to ethical principles while predicting what happens when ethical principles are violated.

[Conclusions] Confucianism, which brings about virtuous customs through Rule by Virtue, can play a role in solving the problem of not adhering to metaverse ethical principles. Therefore, the author sees that Confucianism is inevitably required in an era of non-religion.

[Keywords] Metaverse, Confucianism, Zhuzi, gentleman, Self-discipline and governing the world

* **Corresponding to** Jiyeon Han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hanji7@korea.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탈종교 시대, 메타버스에서 유교 교육의 역할과 과제: 주자(朱子)를 중심으로

신창호¹, 한지윤²

¹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²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종교인 비율이 높은 MZ세대가 메타버스에서 활발히 활동하므로, 탈종교 시대에 메타버스에서 유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메타버스 윤리 문제가 늘어가는 시점에 메타버스에서의 유교 활동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게 하는 종교적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법적인 강제력 없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유교의 덕치(德治)를 제시한다. 덕을 갖추어서 자발적으로 준칙을 지키게 하는 주자의 수기(修己)는 윤리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보고 윤리원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깨달아서 윤리원칙을 지키는 군자 아바타를 기르는 개인 교육의 토대가 된다. 치인(治人)은 윤리원칙을 어길 때 발생하는 일을 예측하면서 윤리원칙을 지키는 군자 아바타를 모방하게 하는 공동체 교육의 토대가 된다.

[결론] 덕치로 유덕(有德)한 풍속을 불러일으키는 유교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논자는 탈종교 시대에 불가피하게도 유교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 탈종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당면하는 과제는 실재와 다르게 도덕적 감화가 어렵고, 메타버스 종교활동이 깊은 신념을 지니게 하거나 수양에 몰입하게 하기 어려우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노년층이 메타버스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주제어] 메타버스, 유교, 주자, 군자, 수기치인

I. 서언

종교인이 급속히 줄고 있는 현대는 탈종교(脫宗教) 시대로 불리기도 한다. 종교를 믿는 신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통계로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갤럽은 1984년부터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보고서를 펴두로, 30년간 종교인의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00년대 이후 종교인이 급격하게 감소한 연령대는 청년층이며, 2004년 20대 중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에는 31%, 2021년에는 22%로 줄어든다.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38%, 2021년 30%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종교인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기에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종교적인 집회를 하는 사례가 차츰 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이는 아바타가 현실과 다르지 않게 종교, 교육, 문화, 사회, 경제, 과학 기술의 활동을 하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이다. 현실과 가상이 결합한 세계인 메타버스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최근에 다양한 종교 집회가 열리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현재 종교적 정체성,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공격하는 윤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메타버스 메타테스트 서비스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호라이즌 월드에서는 인종 차별, 동성애자 혐오 발언, 총기를 사용한 폭력, 마약, 스토킹 피해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조사한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10대-20대의 경우 혐오 표현 및 괴롭힘 56.7%, 성적 콘텐츠 68.7%, 자살 41.3% 등으로 꼽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메타버스에서 학습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갈수록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더 늘 수 있다(Kshetri, 2022: 6).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탈종교 시대에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종교가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종교 시대에 메타버스에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탈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탈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메타버스에서의 종교활동이 메타버스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가 늘고 있어서 최근 한국에서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하는 데 이르렀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배포해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덕적인 풍습을 불러일으킨 유교에 토대를 두고 메타버스에서 당면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탐색해보아야 한다. 신유학자인 주자(朱子, 1130~1200)는 각자 덕을 갖추어서 준칙을 지키게 하는 방도를 논하므로, 본 연구는 주자의 『사서집주』, 『주자어류』와 같은 문헌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II장에서 탈종교 시대에 종교교육의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비종교인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시대에 비종교인 비율이 높은 젊은 세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탈종교 시대에 메타버스 종교활동으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II. 탈종교 시대에 종교의 방향

1. 메타버스에서 종교활동 사례

젊은 층 세대에서 종교인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으므로, 탈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메타버스 종교활동 가운데 2004년에 메타버스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플랫폼에서 바보교회(Church of Fools)를 임시 운영한 사례가 있다. 가상교회를 실험하려고 교회를 가상공간으로 옮겨 놓은 바보교회에 참여하는 아바타는 4개월 만에 4만 1,000명에 이르렀다. 바보교회 시범 기간이 종료되어도 참가자들의 요청이 많아서 2006년에는 세인트 픽셀(St. Pixel)이라는 교회를 다시 열었다. 메타버스 VR 교회는 AltSpaceVR 플랫폼에 만들어진 가상교회이고 가상교회 목사인 소토(D. J. Soto)가 2016년에 설립한 영적 공동체이다. 소토는 현실 세계의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2030년의 교회는 메타버스 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메타버스에서는 장애인이나 주일 근무자, 대인 기피증 등 교회 방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아바타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 예배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입체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비종교인들에게 설교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은 기독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니켈(Nickel)은 EvolVR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서 불교 법당에 많은 사람을 함류하게 하고 있다. 아바타가 법당에 들어가고 명상 세선에 참석한다. 팬데믹 시기에는 참석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이 메타버스 불교 포교 활동을 위해 전법 포교 현장을 구현하고 있다. 보일 스님은 젊은 불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교계 또한 메타버스 도입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메타버스에서의 종교활동 가운데 유교의 포교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메타버스 게더타운 플랫폼에 유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었다. 안동 유교랜드 또한 메타버스 박물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있다. 2024년에는 메타안동유교박물관[메타버스 환경구축], 메타휴먼[메타버스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구현], 버추얼 인플루언서, 실감 인터랙티브 콘텐츠[미디어아트], LED 미디어월이 생길 예정이다. 전 세계인이 메타버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게더타운 플랫폼에 만든 유교 문화 체험 공간
[Figure 1] Confucian Culture Experience Space created on the GatherTown platform by the Korean Confucian Culture Promotion Agency

중국에서는 신유학자인 주자의 유교 사상이 디지털로 전환해서 전달되고 있다.



[그림 2] 주자의 문화 유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 (a) 웹 서비스 (b) 모바일 서비스 (c) 메타버스 시스템
[Figure 2]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Service Platform of Zhu Xi: (a) Web Service (b) Mobile Service (c) Metaverse System(Fan, Chen & Huang, 20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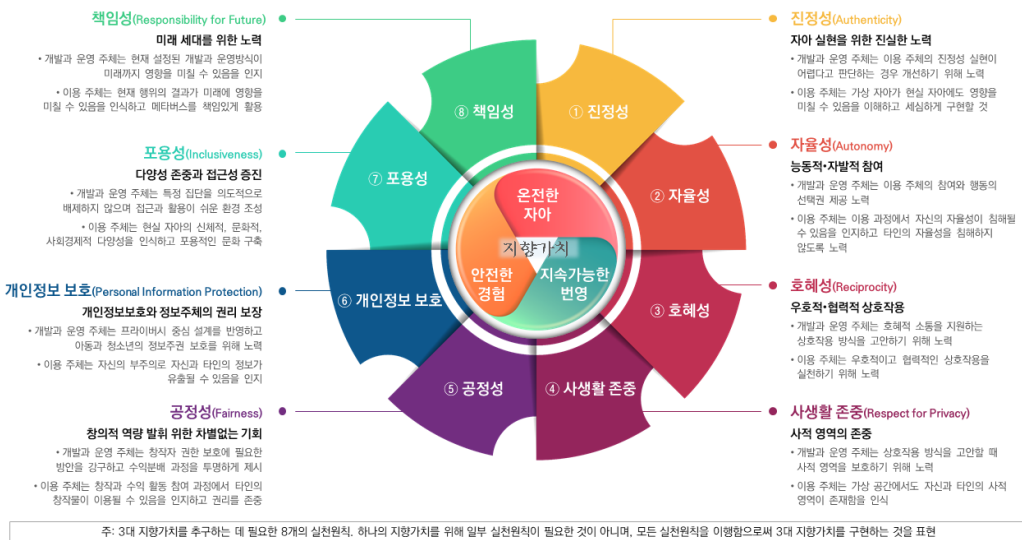
주자의 문화 유산 자원을 MDF-HF 프레임워크로 디지털화한 결과물은 문화를 정리하고 통합한 대각선 사진 모델, 3D재구성 모델, 3D포인트 클라우드 정보, 파노라마 사진, 파노라마 비디오와 같이 디지털화한 콘텐츠들이다(Fan, Chen & Huang, 2022: 10).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우리는 주자의 유교 문화를 언제 어디서나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다. [그림 2] (c)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들이 주자의 신유학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궁극 목표는 재구성된 콘텐츠(3D 모델, VR 애니메이션 등)를 실제와 같이 전달하는 것이어서 실제 세계와 가상 경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를 메타버스에서 전파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종교인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MZ세대가 메타버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젊은 세대가 메타버스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교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 또한 아바타로 접속해서 제약 없이 종교활동을 하게 한다. 메타버스에서의 종교 전파는 탈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 메타버스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과 유교의 이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제시한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라 아바타들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상세계이다. 이러한 가상세계에서는 아바타를 흉기로 공격하는 것과 같이 실생활과 다르지 않은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메타버스에서는 혐오 표현, 증오 표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소아성애, 스토킹, 개인정보를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몸에 촉각을 재현하는 가상현실 헬멧과 햅틱 슈트를 입을 때는 부적절한 행동이 심각한 디지털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다. 메타버스 경험은 강화된 폭력성, 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신체 이미지 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해 본 장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메타버스 종교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칼머스(Chalmers)는 메타버스가 자체 원칙을 가진 사회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



[그림 3] 메타버스 윤리원칙
[Figure 3] Metaverse Ethical Principles

정부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 이르렀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배포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자율적인 윤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행동 준수사항이다. 윤리 규범에 대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메타버스 윤리 원칙은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가운데 8대 실천원칙은 윤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유교 사회에서 강조한 이치와 유사한 면이 있다. 즉 메타버스 실천원칙 가운데 포용성은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 가운데 인(仁)은 마음의 덕을 의미한다(*Zhuiziyulei*, lunyu 2).¹⁾ 이러한 유교의 핵심 덕목인 인은 무리 사이에서 편당 짓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두루 어울리는 인간성을 의미하므로, 메타버스 8대 실천원칙 중 포용성과 유사한 의미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 규범적 차원에서 특정 집단, 소수집단,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뜻인 포용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치인 인은 개념적으로 엄밀히 다를 수 있다. 포용성은 사회에서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의미이고 유교의 인은 자연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 받은 성(性)을 온전하게 구현해 덕을 갖춘다는 의미이므로, 개념 차원에서 다를 수 있다(*Mengzijizhu*, jinxinxia).²⁾ 예를 들어 유교에서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어린아이를 보면 저절로 측은한 마음이 생기므로,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를 돕고자 하는 인간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메타버스 실천원칙은 사회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자발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상정하지 않으므로, 포용성과 유교의 인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유교 사회나 메타버스가 등장한 현대 사회에서 전부 요구하는 규범이 타인을 배척하지 않고 누구나 사랑하는 인류애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인 공정성은 유교의 인의예지 가운데 그에 마땅하게 대처하는 의(義)와 유사할 수 있다. 성별, 인종, 지위 등의 차별 없이 대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인 공정성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결단력인 의는 그에 마땅하게 대응하는 원리이므로, 각기 다른 의미가 아닐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과거 유교 사회에서 혈연이나 신분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기 분수를 지키는 일이 사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자 의(義)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회적 안정을 위해 조화를 이루는 관계 질서가 요구됨에 따라 군주와 신하간의 관계는 수직 질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 분수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곧 의로운 것이다. 이에 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인 공정성은 연령, 성별, 인종, 경제 수준, 문화 배경, 종교와

1) 朱子語類·論語2, “其爲人也孝弟章, 心之德, 愛之理. 戴云, 仁者, 仁此者也. 義者, 宜此者也. 禮者, 履此者也. 智者, 知此者也. 只是以孝弟爲主. 仁義禮智, 只是行此孝弟也.”

2) 孟子集註·盡心下, “程子曰, 仁義禮智天道, 在人則賦於命者, 所稟有厚薄清濁, 然而性善可學而盡, 故不謂之命也.”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개인의 공헌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보상을 뜻한다. 정당한 처우를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규범을 뜻하는 공정성과 유교에서 관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건 사회적인 규범을 뜻하는 의는 각기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에서 의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실천원칙인 공정성 또한 일을 수행하는 기준으로 적절함을 뜻하므로,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소통과정에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구하기 위해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호혜성은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 가운데 예(禮)와 유사할 수 있다. 유교에서 예는 개인의 사욕보다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도리이다. 유교에서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 장유의 질서, 친족과 타인을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바로 예이다. 이러한 예의 유무에 따라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차별한 점에서 예는 넓은 의미로 문화를 뜻한다. 이에 비해 메타버스 실천원칙인 호혜성은 한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줄 때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하면서 안정된 위계질서 체계나 정치적 안정을 지켜 준다는 의미이다. 한편으로는 개념사적 차원으로 유교 사회에서 봉건적인 관계 질서에 따라 구별 짓는 기준으로서 예와 현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 교환체계에 따른 호혜성의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유교 사회에서나 현대 사회에서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질서 체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메타버스 실천원칙인 자율성은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를 능동적으로 판별하고 행동 방식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유교에서 지(智)는 의리(義理)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자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얻을 것을 나중에 할 줄 아는 선천적인 지혜를 뜻한다.³⁾ 메타버스 실천원칙인 자율성은 메타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그른 것임을 알고 침해하지 않게 한다. 옳고 그름을 식별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자율성 실천원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상정하지 않는 메타버스 실천원칙인 자율성과 외부에 있는 천리와 일치하는 마음의 이치를 표준으로 해서 타율도덕과 자율도덕을 아울러 주재해야 하는 유교의 지(智)는 외부의 힘을 상정하는 여부에 따라 개념적으로 다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어떤 제재 없이 원리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선택·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판별력을 뜻하는 메타버스 실천원칙인 자율성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유교의 이치는 전부 다른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든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분별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유교의 특징은 외부에 있는 천리(天理)와 마음에 둔 이치를 일치시키면서 타율도덕과 자율도덕 간의 괴리가 없다. 이러한 유교는 도리에 어긋난 언행을 할 때마다 준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내면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하므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3) 大學章句·序, “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메타버스 실천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Zhongyong, chapter 1).⁴⁾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메타버스 실천원칙을 지키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는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덕치(德治)를 이루는 유교에 토대를 둘 때 해결될 수 있다.

III. 유교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적용

1. 개인 교육을 통한 군자 아바타 형성

현대에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면서 맞닥뜨리는 한계는 유교에 기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들어서 배포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그로 인해 본 장에서는 메타버스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 없이도 유교에 토대를 두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도록 촉진할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유교에 기반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유교에서 준칙을 강조했던 배경과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정립된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유교의 대도가 전해지지 않고 유덕(有德)한 풍습이 쇠퇴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인 풍속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교의 도를 전하고자 했다(Daxuezhangju, preface).⁵⁾ 남송 때 주자는 도덕적인 풍속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덕을 갖춘 군자가 교화하는 방법으로 도덕 준칙을 따르게 했다. 이는 현대에 메타버스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배포해서 지키게 해야 하는 배경과 다르지 않다.

유교에서 도덕적인 풍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행했던 방법을 현대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유교에서 덕행을 갖춘 모범으로서 군자는 천도를 좇아 마음을 진실하게 다하면서 덕(德)을 갖춘 자이다(Lunyu, liren).⁶⁾ 유학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사욕의 방해 없이 우주·자연의 보편적 원리 원리와 일치하는 삶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사람이다(Kim, 2019: 420). 시종일관 마음을 진실하게 다하면서 본성을 회복한 결과 인륜을 실천하는 모범적 인간상이 군자인 것이다. 군자가 먼저 회복한 본성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다.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을 진실

4) 中庸·第1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5) 大學章句·序, “自是以來,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倍於小學而無用, 異端虛無寂滅之教, 其高過於大學而無實, 其他權謀術數一切以就功名之說, 與夫百家衆技之流, 所以惑世誣民, 充塞仁義者, 又紛然雜出乎其間, 使其君子不幸而不得聞大道之要, 其小人不幸而不得蒙至治之澤, 晦盲否塞, 反覆沈痼, 以及五季之衰而壞亂極矣.”

6) 論語·里仁, “子曰,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

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군자는 부모를 뵈 때마다 효도하고 어른을 뵈 때마다 공경하고 벗과 신의 있게 지내면서 인륜을 극진히 다한다. 인이 근본이고 인의 쓰임이 효제이므로, 군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본성을 극진히 다한다. “성(性) 가운데 인·의·예·지 네 가지가 있을 뿐이니, 어찌 일찍이 효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인은 사랑을 주장하고, 사랑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Lunyujizhu*, xueer).⁷⁾ 마음에 둔 성(性)을 구현하는 군자는 집안에서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집밖에서는 만인을 사랑할 줄 안다. 군자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을 따라 인륜을 다해야 함을 알고 극진히 힘써 몸소 체득한 자이다(*Zhongyongzhangju*, chapter 20).⁸⁾ 이러한 군자는 참된 인간성을 실현하는 데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Tu, 1979: 48). 끊임없이 삼가는 수양으로 사욕을 없애고 본성을 회복하는 데 극진히 힘써서 천륜을 거스르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기(修己) 즉 개인 교육을 통해 인의예지신과 같은 오상(五常)과 일치하는 오륜(五倫)을 알고 삼가면서 실천한다. 군자는 사물의 이치를 지극하게 탐구하는 방법으로 마음에 둔 본성을 알아서 뜻을 진실하게 하는 단계에 이른다(*Daxuezhongju*, chapter 1).⁹⁾ 학습자는 이해가 깊어져서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단지 게임이 아니라 인격 성장의 성스러운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천을 하기 위해 교육자의 유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Tu, 1993: 36).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을 갖추고 있는 군자는 한 터럭만큼의 인욕도 섞이지 않게 수양해서 지극히 진실하고 인륜(人倫) 차원에서 각기 당연함의 실재를 다하며 천하와 후세의 본보기가 된다(*Zhongyongzhangju*, chapter 32).¹⁰⁾ 송 대 유학 이전에 성인군자 개념이 제왕이나 제후의 통치 권력 문제나 지도적 인격의 문제와 주로 관계되어 있다면, 송대 유학자들은 교육을 통한 인간의 내적 성장, 인격 완성의 교육적인 인간상이 된다(Ko, 2012: 258). 성(性)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이상적으로 덕을 갖춘 인간상이 군자이므로, 군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다. 군자는 먼저 도덕성을 갖추어서 그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준칙을 벗어나지 않고 날로 새롭게 도덕성을 갖추게 한다(*Daxuezhongju*, chapter 1).¹¹⁾ 이러한 유교의

7) 論語集註·學而, “蓋仁是性也, 孝弟是用也, 性中只有箇仁, 義, 禮, 智四者而已, 曷嘗有孝弟來. 然仁主於愛, 愛莫大於愛親.”

8) 中庸章句·第20章, “達道者, 天下古今所共由之路, 卽書所謂五典, 孟子所謂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是也. 知, 所以知此也, 仁, 所以禮此也, 勇, 所以強此也, 謂之達德者, 天下古今所同得之理也.”

9) 大學章句·經1章, “物格者, 物理之極處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也. 知既盡, 則意可得而實矣, 意既實.”

10) 中庸章句·第32章, “其於所性之全體, 無一毫人欲之僞以雜之, 而天下之道千變萬化, 皆由此出, 所謂立之也, 其於天地之化育, 則亦其極誠無妄者有默契焉, 非但聞見之知而已, 此皆至誠無妄自然之功用, 夫豈有所倚著於物而後能哉.”

11) 大學或問·經文, “故必推吾之所自明者以及之, 始於齊家, 中於治國, 而終及於平天下, 使彼有是明德而不能自明者, 亦皆有以自明而去其舊染之污焉. 是則所謂新民者.”

본보기는 일정한 준칙을 실천하는 표본으로서 메타버스에서 윤리원칙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데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개인 교육을 통해 도덕 준칙을 알고 지키는 유교를 메타버스에서 윤리원칙을 지키게 할 때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포용하는 사례와 포용하지 않는 사례를 전부 관찰한 사람은 주자가 논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포용하지 않은 결과 발생하는 일을 겪고 아바타를 포용하는 사례를 모방해야 하는 까닭을 참으로 알 수 있다. 참으로 아는 바가 있으면 몸소 실천하는 데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앎을 이룬 다음에는 뜻이 저절로 진실하나, 진실하지 않은 바에 이르면 앎이 참되지 않기 때문이다(*Zhuziyulei, daxue 3*).¹²⁾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언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을 지켜본 아바타는 타인의 폭언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준거로 해서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아바타는 폭언을 하지 않으려는 뜻이 생길 수 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이 나오는 것을 준거로 해서 폭언을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을 깨달으면 폭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폭언할 때마다 발생하는 일을 알고 상황에 부합하지 않게 폭언을 하지 않고자 하는 아바타는 인을 근본으로 집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듯이 아바타들을 사랑하므로, 메타버스에서 덕을 갖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현실세계와 다르지 않게 메타버스에서도 늘 깨어 있는 상태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참으로 깨달은 아바타가 비로소 윤리원칙을 실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면, 가문에서부터 이미 효도하는 까닭을 알고 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옛 예절에 따라 행동한다(*Zhuziyulei, daxue 2*).¹³⁾ “일은 비록 선한 짓을 한다고 해도 마음의 소종래(所從來)가 선하지 못함이 있다면, 또한 군자가 될 수 없다.”(*Lunyu jizhu, weizheng*).¹⁴⁾ 메타버스에서도 시뮬레이션을 거쳐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발생하는 일을 명확히 알고 있는 아바타는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윤리원칙을 아는 대로 실천한다. 메타버스에서 실천원칙을 지키지 않는 아바타를 보고 따라하려고 할 때마다 극진히 삼가는 수양으로 실천원칙을 지킬 수 있다. “치지는 이미 뜻을 70-80% 진실하게 한다. 다만 삼가도 홀로 있는 곳에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신독이 중요하다.”(*Zhuziyulei, daxue 3*).¹⁵⁾ 진실하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더욱 드러나고, 더욱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變)하고, 변(變)하면 화(化)할 수 있다(*Zhongyong, chapter 23*).¹⁶⁾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놀이의 규칙 또는 도덕 원칙에 기꺼이

12) 朱子語類·大學3, “先生久之曰, 知至後, 意固自然誠。但其間雖無大段自欺不誠處, 然亦有照管不著所在, 所以貴於慎其獨。至於有所未誠, 依舊是知之未真。”

13) 朱子語類·大學2, “如事親孝, 自家既知所以孝, 便將此孝心依古禮而行之。”

14) 論語集註·爲政, “事雖爲善, 而意之所從來者有未善焉, 則亦不得爲君子矣。”

15) 朱子語類·大學3, “致知者, 誠意之本也。慎獨者, 誠意之助也。致知, 則意已誠七八分了, 只是猶恐隱微獨處尚有些子未誠實處, 故其要在慎獨。”

16) 中庸·第23章, “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

승복(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의례의 타당성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Ivanhoe, 2000: 5).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양으로 군자를 기르는 유교의 개인 교육은 메타버스에서 윤리원칙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아바타를 기르는 데 유용한 토대일 수 있다.

2. 군자 아바타를 본받는 공동체 교육

메타버스에서 윤리원칙을 지키는 군자 아바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는 아바타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본 장에서는 메타버스에서 군자 아바타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바타들이 윤리원칙을 지키도록 촉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폭언, 폭행, 성범죄,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들은 메타버스 실천원칙을 지키는 군자 아바타를 보고 자연스럽게 본받을 수 있다. 다른 아바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군자 아바타는 비윤리적인 언행으로 인해 메타버스 실천원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아바타들의 도덕적인 표본이 될 수 있다. 유교의 교설에 따르면 군자는 성인을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인은 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ark, 2001: 235). 유교에서는 성인을 본받은 군자가 현실적인 본보기이므로, 메타버스에서도 소인 아바타들은 군자 아바타를 보고 그의 덕행을 모방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법적 강제력 없이도 군자가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었으므로, 유교의 덕치(德治)에 토대를 두고 메타버스에서도 자발적으로 윤리원칙을 지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도덕 규범을 지키면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군자를 보고 그를 본보기로 삼아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고 본성을 회복하게 한다. 인성의 위에는 한 가지 일도 더할 수가 없으니, 요(堯)·순(舜)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본보기가 되는 것도 본성을 따랐을 뿐이다(Mengzizhu, preface).¹⁷⁾ 주자는 사람이 누구나 인의예지의 성(性)을 마음에 두고 있으나 탁하고 섞인 기질로 인해 그것을 알고 실천하지 못하므로, 먼저 본성을 회복한 군자가 그를 따라 사람들이 본성을 회복하게 한다고 말한다(Daxuezhangu, preface).¹⁸⁾ 이는 본보기가 덕으로 교화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도덕 준칙을 지키게 한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훌륭한 정부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사회이고, 이를 위해 그는 처벌이나 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덕과 도덕적인 사례로 다스리는 훌륭한 정부이다(Chan, 1963: 15). 유교에서는 법적인 처벌 없이 군자가 개별적으로 수양해서 덕을 갖추는 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덕을 갖추게 해야 비로소 군자의 도를 이

能化.”

17) 孟子集註·序說, “人性上, 不可添一物, 堯舜所以爲萬世法, 亦是率性而已.”

18) 大學章句·序, “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其間,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 以復其性.”

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비윤리적인 언행을 하는 아바타가 본보기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으면 본보기와 자신을 견주어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도리에 어긋난 언행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교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넓혀간다면 인격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흔들리지 않는 축[중용]을 잃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위한 학문은 그러한 중심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Tu, 1993: 31). 현재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들에게 포용성과 같은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일일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유교에 토대를 두고 아바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도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개인 교육을 먼저 이룬 군자가 인격적인 모범이 되어서 공동체 교육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유교는 메타버스 실천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법적인 제재 없이 해결하는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수신을 바탕으로 그것을 응용하는 실천행위이고 개인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적 정치 이상의 실현이기도 하다(Shin, 2010: 166). 이러한 유교에 토대를 둘 때 메타버스에서는 윤리원칙을 실천하는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사건으로 인해 법적 처벌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법적 처벌 없이도 메타버스에서 실천원칙을 지키게 하는 방안을 유교의 덕치에서 모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게 하는 기반으로써 유교의 공동체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논어』에 “세 사람이 길을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Lunyu, shuer).¹⁹⁾ 이는 군자와 같은 사람이 본보기가 되고 소인과 같은 사람은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범이 되는 선한 사람을 잘못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는 본보기로서 스승으로 삼을 만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내면으로부터 삼가면서 수양을 해서 선하지 않음을 없애야 하니 모두 나의 스승이 된다(Zhuziyulei, lunyu 16).²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미덕의 완벽한 실현보다 실수와 실패를 일부 보이면서 잘못을 개선해 (사람들에게) 윤리학의 견해를 갖게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행동이 우리의 본보기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Lai, 2014: 92). 이러한 내용을 접한 학습자는 소인과 같이 악행을 할 때 발생하는 일을 예측하면서 악행을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을 알고 그를 모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의 창작물을 존중하지 않는 아바타의 행동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고 저작권과 소유권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깨달아서 군자 아바타와 같이 다른 창작물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소인 아바타의 잘못을 접하면서 그것을 모방할 때 아바타들과의 갈등이

19) 論語·述而,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20) 朱子語類·論語16, “善者固可師, 不善者這裏便恐懼修省, 恐落在裏面去, 是皆吾師也.” ; 論語·子張, “子貢曰, 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

깊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우리는 법적인 제재 없이도 잘못된 사례를 모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소인은 군자를 보아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덕보다 이익에 더 밝으며 남에게서 도를 구한다(*Lunyu, liren*).²¹⁾ 군자와 소인의 사례를 전부 접하면서 선한 본보기와 선하지 않은 본보기를 식별할 때 비로소 아바타는 선한 본보기를 모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마주치는 행동을 이해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 또한 필요로 한다(Lai & Lai, 2023: 802). 교육자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별하는 연습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자식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뜻은 알 수 있고, 아버지가 별세한 뒤에야 그 행동을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관찰하면 사람의 선과 악을 충분히 알 수 있다.”(*Lunyu jizhu, xueer*).²²⁾ 타인의 행동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선과 악을 명확하게 판별하면 사람은 선한 행동을 모방하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학문에 힘쓰면서 교육받은 인간은 소인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Shin, 2010: 165). 이러한 공동체 교육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의 행동을 관찰하고 선과 악을 식별해서 악행을 모방한 결과 발생하는 일을 예측하고 선행을 모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타인이 겪을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러한 잘못을 모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해도 언어적 성희롱까지 막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군자 아바타를 모방해서 각각 아바타가 덕을 갖추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한 본보기를 관찰하면서 모방하게 하는 유교 교육은 법적인 제재 없이 자연스럽게 감화를 이루므로, 메타버스에서 윤리원칙을 지키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보다도 빠르니, 이른바 집안이 가지런해짐에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것이니, 또한 사람 마음이 똑같다.”(*Daxue zhangju, chapter 10*).²³⁾ 이는 군자가 먼저 덕을 갖추어서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결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한 마음을 지니게 하는 방법이다. 공자가 지닌 모범적 스승으로서의 진정한 힘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만큼 온화하고 상쾌했던 그의 설득력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Tu, 1979: 53). 메타버스에서도 늘 마음을 진실하게 다하는 군자 아바타는 아바타들의 귀감이 되므로, 자기만 본성을 이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 또한 본성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다(*Zhongyong, chapter 25*).²⁴⁾ 도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서 각각 자발적으로 메타버스 윤

21) 論語·里仁, “子曰,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 ; 論語·里仁, “子曰, 君子, 喻於義, 小人, 喻於利.” ; 論語·衛靈公, “子曰, 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

22) 論語集註·學而, “父在, 子不得自專, 而志則可知, 父沒然後其行可見. 故觀此, 足以知其人之善惡.”

23) 大學章句·傳10章, “言此三者, 上行下效, 捷於影響, 所謂家齊而國治也. 亦可以見人心之所同.”

24) 中庸·第25章, “誠者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리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메타버스 윤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유교에서 군자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는 것은 극진히 삼가는 군자의 학습 태도를 보고 모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신을 보는 아바타가 없을 때 다른 아바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아바타가 자신을 보는 아바타가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언행을 멈출 수 있다. 이때 군자 아바타는 대화를 통해 폭력적인 언행을 겪은 아바타를 공감하게 하면서 자신을 보는 아바타가 없을 때도 자신의 언행을 삼가야 하는 까닭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자신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아바타로 인해 느낀 고통을 되새겨보게 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삼가도록 촉진할 수 있다. 공동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반성한 아바타는 군자 아바타와 같이 속으로 선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 삼갈 수 있다. 군자 아바타를 본받아서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드는 기미를 관찰해 (선한) 기미가 나오는 것을 지킬 수 있다 (Zhuziyulei, Zhongyong 1).²⁵⁾ 메타버스에서 윤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아바타는 군자 아바타와의 대화를 통해 윤리원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깨닫고 몸소 이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법적인 제재 없이도 공동체 교육을 통해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기술이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유교적 인간관계의 윤리라 할 수 있고, 신독, 성(誠)의 유교적 개인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인간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Keum, 2001: 63-65).

물론 메타버스 실천원칙은 유교에서 강조한 이치와 엄밀하게 달라서 주자의 수기치인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존중과 같은 메타버스 실천원칙은 유교에서 중시하는 이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실천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때 유교에 토대를 두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존중 또한 사람 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하는 것이어서 유교에서 강조한 예(禮)를 벗어나지 않는다. 과거 유교 사회는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존중이 요구되지 않는 사회였더라도 유교의 예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해서 존중하고 그에 적절한 예를 갖추게 하는 덕목이어서 메타버스 실천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군자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예를 갖추면서 그에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방하는 아바타가 차츰 늘어갈 수 있다. 유교 전통에서 선은 훌륭한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영감의 원천과 조언뿐만 아니라 모델링의 원천이기도 하며 커뮤니티에서 감염될 수 있다(Kupperman, 2004: 115).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해커가 아바타들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아바타는 아바타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기 위해 메타버스에서 윤리원칙을 지킬 수 있다.

25) 朱子語類·中庸1, “愼獨, 則於善惡之幾, 察之愈精愈密, 便是惟精底工夫. ... 愼獨, 幾之將然處. 不可不精察而愼守之也.”

IV. 결어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종교활동을 추구하면 탈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탈종교 시대에 요구되는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 탈종교 시대에 비종교인의 연령대가 높은 MZ세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메타버스에서 종교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탈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신도수가 급격히 늘어난 메타버스 종교 집회와 같이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청년층이 종교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탈종교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격을 갖추게 하는 종교의 부재로 인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다. 윤리 문제가 늘어가는 메타버스에서는 덕이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게 하는 종교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들어도 법적인 처벌이 없으면 아바타들이 윤리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첫째, 법적 강제력이 없이도 덕으로 준칙을 지키게 하는 유교에 토대를 두고 해결할 수 있었다. 주자의 수기치인에 기반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마다 그에 적절하게 덕행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바타에게 선한 영향 또한 미치면서 윤리원칙을 지키게 할 수 있었다. 올포트는 종교적 탐구가 중요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Allport, 1961: 285). 종교의 윤리적 역할은 다양한 종교 원칙의 적용을 안내하며, 종교적 헌신은 미덕과 관련이 있었다. 메타버스가 단순히 게임을 하고 피상적으로 대화하는 공간을 넘어 종교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을 주는 윤리적인 가상공간으로 조성되어야,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둘째, 메타버스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아바타는 주자의 수기치인에 토대를 두고 현실세계와 다르지 않게 비윤리적인 언행을 자제할 줄 알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는 시뮬레이션을 해나갈 수 있었다. 유교에 토대를 두고 윤리원칙을 지킨 결과 윤리 문제가 줄어든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아바타는 메타버스에서 덕을 건고히 갖추어나갈 수 있었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유교 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 현실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자의 수기치인을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때 발생하는 간극이 있다는 데 있었다. 주자의 수기치인은 면대면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서 타인 또한 덕을 갖추게 하는 덕치(德治)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상세계에 적용하는 일이 현실세계보다 쉽지 않을 수 있었다. 즉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는 윤리원칙을 어기는 아바타를 보고 그것이 그른 행동임을 식별해도 장난삼아 그러한 잘못을 쉽게 모방했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현실세계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부도덕한 언행을 모방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윤리법칙을 지키는 데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교의 감화(感化)를 이루려고

해도 악행이 이미 만연한 메타버스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아바타에게 동화되기 쉬웠다.

둘째, 현실세계에서 유교를 통해 인격을 갖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듯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유교에 토대를 두고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의 종교활동은 현실세계의 종교활동보다 깊은 수양을 하고 참으로 깨닫는 데 다양한 제약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었다. 즉 메타버스에서의 종교활동은 기술로 인한 실재감이나 공감 차원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수양, 참된 앎, 실천을 이루도록 촉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탈종교 시대에 현실세계에서 미진한 종교활동을 메타버스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었다.

셋째, 중장년층 이상은 메타버스에서 하는 종교활동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불교계에서는 불자 평균 연령이 50~60대이기에 메타버스 적용은 선부른 선택이고 어떻게 기존 신도와 새로운 불자를 메타버스 공간에 동참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한 숙제였다. 그러므로 탈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에서 종교활동을 촉구할 때는 현실세계에서도 종교활동을 하면서 신념을 갖고 몰입하도록 유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論語集註. *Lunyujizhu*.

孟子集註. *Mengzijizhu*.

中庸章句. *Zhongyongzhangju*.

大學章句. *Daxuezhangju*.

朱子語類. *Zhuziyulei*.

朱子全書. *Zhuziquanshu*.

大學或問. *Daxuehuowen*.

[Secondary Sources]

Allport, Gordon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Chan, Wing-tsit (1963).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osunBiz (2022.05.28.). 메타버스, 접속 1시간만에 성폭력 범죄 발생 빈번... 유해 콘텐츠 소굴. Retrieved 2023.09.25. from 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5/28/W7XDKBPT4ZBX3EI6RTUM45ZH54/
- Digital Today (2021.12.29.). 10대들 몰리는 메타버스 플랫폼...벌써 디지털 성범죄 우려. Retrieved 2023.11.14. from 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060
- Fan, Zhanling, Chen, Chongcheng & Huang, Hongyu (2022). Immersive cultural heritage digital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for historical figure metaverse: a case of Zhu Xi, Song Dynasty. *China. Heritage Science*, 10(1), 1-13.
- HIIC (2021.03.02.). 메타버스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 Retrieved 2023.09.26. from www.hiic.re.kr/vol-02-%eb%a9%94%ed%83%80%eb%b2%84%ec%8a%a4%ec%99%80-%ed%94%84%eb%9d%bc%ec%9d%b4%eb%b2%84%ec%8b%9c-%ea%b7%b8%eb%a6%ac%ea%b3%a0-%ec%9c%a4%eb%a6%ac-%eb%85%bc%ec%9d%98%ec%9d%98-%ec%8b%9c%ec%9e%91/
- Ivanhoe, Philip J. (2000). *Confucian moral self cultivation*. Indianapolis: Hackett Pub.
- KADH (2023.01.26.).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게더타운. Retrieved 2023.9.26. from www.kadh.org/%ED%95%9C%EA%B5%AD%EC%9C%A0%EA%B5%90%EB%AC%B8%ED%99%94%EC%A7%84%ED%9D%A5%EC%9B%90-%EA%B2%8C%EB%8D%94%ED%83%80%EC%9A%B4/
- Kim, H. C. (2019). Two Paths to Expanding Ego - The Confucian View of the Sage and the Modern View of Citizens -. *The Journal of T'oegye Studies*, 145, 401-432.
- Ko, D. H. (2012). Chin-ssu Lu and Confucian Gongfu Theory. *Journal of eastern studies*, 22, 257-289
- Kshetri, N. (2022). Policy, Eth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of Web3 and the Metaverse. *IT Professional IT Prof. IT Professional*, 24(3), 4-8.
- Kupperman, J. J. (2004). Tradition and community in the formation of character and self. Shun, kwong loi & Wong, david, B. *confucian ethics: a comparative study of self, autonomy, and community*. New York: Combridge.
- Lai, K. (2014). Ren 仁: An Exemplary Life. edited by Olberding, A. *Dao companion to the Analects*.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Lai, Y.-Y. & Lai, K. (2023). Learning from exemplars in Confucius' Analects: The centrality of reflective observ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55(7), 797-808.
- N뉴스 (2022.02.28.). “남성 아바타에 성폭행 당했다”...현실 닮아가는 메타버스 성범죄.

- Retrieved 2023.11.14. from m.news.nate.com/view/20220208n09017
- Park, M. R. (2001). The Image of Ideal Man in Chinese Confucianism. *Religion and Culture*, 7, 215-239.
- Religion News Service (2022.01.31.). Faith in the metaverse: A VR quest for community, fellowship. Retrieved 2023.09.26. from religionnews.com/2022/01/31/faith-in-the-metaverse-a-vr-quest-for-community-fellowship/
- Safe Assignments (2020.08.14.). ETHICS ROLE IN RELIGION AND RELIGION ETHICAL ISSUES. Retrieved 2023.09.25. from safeassignments.net/ethics-role-in-religion-and-religion-ethical-issues/
- theguardian (2022.05.14.). Can we create a moral metaverse?. Retrieved 2023.09.26. from 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may/14/can-we-create-a-moral-metaverse
- Tu, Wei-ming (1979). *Humanity and self-cultivation: essays in Confucian thought*.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 Tu, Wei-ming (1993). *Way, Learning, and Politics: Essays on the Confucian Intellect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갤럽 (2021.04.07.).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Retrieved 2023.09.25. from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경기일보 (2022.03.17.). ‘메타버스 성범죄’ 국내 첫 사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Retrieved 2023.11.14. from www.kyeonggi.com/article/20230317580128
- 경북일보 (2022.04.26.). 안동 유교랜드, 국내 최초 메타버스 박물관으로 재탄생. Retrieved 2023.09.25. from 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390
- 금장태 (2001). 유교사상의 문제들. 경기: 한국학술정보. (Translated in English) Keum, J. T. (2001). *Problems of Confucianism*. Gyeonggi: Korean studies Information.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11.28.).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Retrieved 2023.09.26. from 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116
- 머니투데이(2021.11.23.). ‘햇한’ 메타버스에 해커도 몰린다...“제도 빈틈 노리고 개인정보 ‘탈탈’” Retrieved 2023.11.14. from news.mt.co.kr/mtview.php?no=2021112214024545752
- 법보신문 (2022.11.24.). 메타버스 활용, 포교역량 도약 위한 획기적 방법. Retrieved 2023.09.25. fr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267>
- 법보신문 (2022.11.24.). 메타버스 활용, 포교역량 도약 위한 획기적 방법. Retrieved 2023.09.25. from 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267
- 서울신문 (2022.05.15.). 공자와 메타버스 손잡다... 글로벌 시대 유교관광 띄우는 경북. Retrieved 2023.09.25.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6016001>

신창호 (2010). 대학, 유교의 지도자 교육철학. 경기: 교육과학사. (Translated in English) Shin, C. H. (2010). *The Great Learning,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Confucian Leaders*. Gyeonggi: Education and Science Company.